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는 데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을 살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집만 산 게 아니라 그 집도 살게 됐어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그렇게 응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급하면 급한 대로 하면서도 감사하게 또 놔라 이거야.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급한 데에 쓰이는 거지, 그거는, 그냥 무상시 때도 쓰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놓고, 우리가 모든 거 공부하는 데에 체험하고 놓고 돌아가고 하는 그 공부에 있어서 여기는 들어오는 문은 넓지만 나가는 문은 좁아요. 미국 학교나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데는 자기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어디 가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승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작대기가 별안간에 물검이 됐어요. 즉 말하자면 그것이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고 여섯 번째에 내가 책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검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딱 치니까 물이 쩍 갈라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그 쫓아오던 배를 그 바람으로 하여금 파도가 일게 해서 그렇게 다 저쪽으로 내려가게 하니까 쫓아오질 못하고, 반쪽은 올라가게 바람이 부니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물건은 가고, 이쪽 배는 배대로 그렇게 가면서도 그 밑의 고기 떼들이, 즉 고래라든가 상어가 들이덤벼서 배 밑창을 뚫어 놨답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들어오니까 물 푸기 바빠서 거기 쫓아갈 새가 어디 있으며, 바람이 그쪽으로 지동 치듯 부니 그쪽으로 배는 점점 내려간다 이거야.

그럴 때에 노승이 한걸음에 그 배를 또 탔답니다. 저쪽 배는 무사히 돌려보내고 그 배로 작대기를 갖다 걸쳐 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리가 이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어져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랬답니다. "이 마음, 한마음의 도리거늘 그 마음이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 언 거와 같이 그렇게 땡땡 얼었으니 어찌 봄이 와서 사람이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봄이 온다면 스스로 봄이 와서 여러분 먹을 거는 스스로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라의 모든 것을 축내고 백성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면서 "이 밑을 보라." 했어요. 그래서 콸콸 쏟아지는 거를 스님이 작대기 하나로 탁 치니까 고기들이 전부 밑을 받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가장자리로 다 옮겨 놓고선 또 그 고기들은 다 가 버렸지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펑펑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마음의 도리를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거기에서 그만 홀연히 깨닫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스승의 지팡이가 자기 손에 쥐여 있고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더랍니다. 진짜 지팡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지팡이를 감응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지팡이, 보배의 지팡이 하나만 갖는다면 우리의 앞날에 참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물질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그 물질에 앞장서서 리드할 한 마음의 불씨는 드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질을 많이 해 놨어도 감응으로 사는, 즉 말하자면 감응법으로 사는 세계에서는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한번 마음의 감응으로 정신의 발전을 빼 갈 수도 있는 거고, 생명의 근원을 빼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로 사는 겁니다. 발전을 못 해요. 아주 기운이 세고 운동을 아주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쌈이 붙었다 합시다. 그런다면 운동을 갖가지로 다 잘 배운 사람한테는 한 손에, 한 번에 나가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저 사람 손이라면 한 번에 나가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은 벌써 그 사람한테 집어먹힌 겁니다. 집어먹혔어요. 거기에는 하등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20V에 120V가 닿으면 터지듯이, 코드를 꽂으면 터지듯이 그렇게 집어먹혀 버려. 집어먹히느냐, 집어먹느냐 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나라 나라에 경쟁이 있지만, 한 사회에도 경쟁이 있고, 또 한 가정 가정에도 경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더군다나 더 큰 것은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으로 치우칩니다, 다 그냥. 그렇듯이 우리가 지구의 사람이다 하면, 딴 혹성에서 만약에 경쟁이 있다면 우리 지구 사람들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 식구' 이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급급한 거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 보인다면 컴퓨터나 뭐, 이런 책정기나, 망원경이나 무슨 영사기나 이런 걸 놓고 다 하지마는 그런 물건 없이 그런 걸 그냥 감응으로 다 쓰고 다 한다면 그거는 불가항력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물질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감응법으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 무궁무진한 천체망원경이라든가 또는 책정기라든가 또는 무전통신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 가지고, 이런 물질이 없는 그 자체 내에서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혹성의 세계가 있다면…, 그런 혹성의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사는, 예를 들어서 케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나 그런 단체나, 소련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는 빨치산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군부라든가 또는 간첩이라든가 첩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서 모든 것을 수집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런 물건 없이 하는 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몰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듯이 연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야 하겠지마는 그런 전체 혹성들이나 별성들에 못 산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관념만 두지 말고, 이런 데서는 이런 대로 다양하게 살고 이런 데서는 이런 대로 다양하게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불법을 알려면 아주 불 속에서도, 뜨겁지 않은 불 속에서도 살 줄 알아야 되느니라. 물 속에서도, 물 아닌 물에서 살 수 있는 그 법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고요, 또 칼 아닌 칼을 알아야 하고, 법 아닌 법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불씨가, 그렇게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불씨가 있다면, 물질과학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리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잘 리드해서 우리가 어떠한 큰 피해가 없이, 또는 다른 별성에 우리의 정신을 뺏기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가 모자란다면 우리가 먹힐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없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만 나가지 말고 한번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을 하면서도 조금조금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해 보고 다시금 굴려 보고 바깥으로 누설하지 말고, 바깥으로 내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도 발설하지 말고 자기가 무르익도록 항상 해 나가야 하고, 또 내가 안에서 깨달았다 해도 '아,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만약에 무엇을 일러 줬다 하더라도…, 이런 걸 똑바로 들으세요.

바깥의 오관을 통해서 만약에 바깥에 상스러운 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아하! 이렇게 내가 하면 바깥에서 볼 때에 올바른 일이 아니고 상스럽다. 이거는 내 주인공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것이지, 내가 만약에 남한테 미친 자식 소릴 듣는다면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둘이다, 둘 아닌 내가 그대로 문제기 때문에 전체 불가(佛家)가 문제다 이거야. 종교인들 전체가 아주 미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다 봐서 해야지. 저울추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문고 줄이 늘어져서도 아니 되고 팽팽해서도 아니 되고 항상 탕 튕기면 아주 영명하게 잘 튕겨져서 소리가 짱짱 나야 되겠죠.

그것이 중도의 우리의 살림살이, 한마음에서 역시 살림살이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심주가, 주인공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뭐, 도둑질을 해도 괜찮은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바깥의 이치를 다 아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그거 잘못되게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되는 거 번연히 알면서도 네가 양면을 어떻게 가지고 가나 그걸 보느라고, 한생각에서 그대로 양면을 다 쥐고서 이 법을 응용을 하는 데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런 테스트를 해 보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어물어물해 버리곤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어물어물한 것을 한번 잘 생각들 해 보세요. 어물어물한 이 말 속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로서도 어물어물할 수밖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붙여져 있나, 뭐가 붙여져 있나. 이름도 붙여져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한마음의 한 불씨라는 그 속에는 이 통신기로 인해서, 책정기로 인해서, 컴퓨터로 인해서, 이 물질이 아닌 나한테 다 들어 있는 걸로 인해서 그때 마지막에 가서는 책정을 하고는 검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불검이냐, 빛의 검이냐, 철퇴의 검이냐, 즉 물기둥의 검이냐. 그 검은 이름이 많지만 아주 이익하게 쓰이는 검입니다, 이 검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무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해 주더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당을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꿈에도 하치않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궂은일도 했다가 좋은 일도 했다가, 어떤 때는 장갑을 끼고 변소를 닦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요 손을 깨끗하게 닦고 보석 반지도 끼죠. 그런데 고무장갑을 끼고선 변소 닦을 때 자기 손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업신여기지 못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나투어서 궂은일 할 때는 무당으로 보이고, 성스러운 아주 좋은 일 할 때는 부처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무당은 부처가, 법신이 저 아래로 내려서서 변소 닦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시에서 우리가 그런 걸 깔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류화시킬 수 있는, 어질고 착하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써 다 집어먹어라 이거야. 귀합을 시켜라. 저이도 그 저 살 수 없으니까 저랬겠지. 마음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한생각 내 주는 그 무주상 보시를 내 주면 먹고살 수 있으면서도 그 짓을 안 하게끔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무주상 보시라고. 틀림없이 무당 노릇 안 해. 내가 수십 명 수백 명 다뤄 봤지만 그 사람네들 지금 잘 살거든요. 그게 말로 해 주는 거보다도, 오다가다가도 무당의 그 짓을 버리고 모셔 놓은 것도 다 없애 버리게 하고 잘 살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한테도 미치지 않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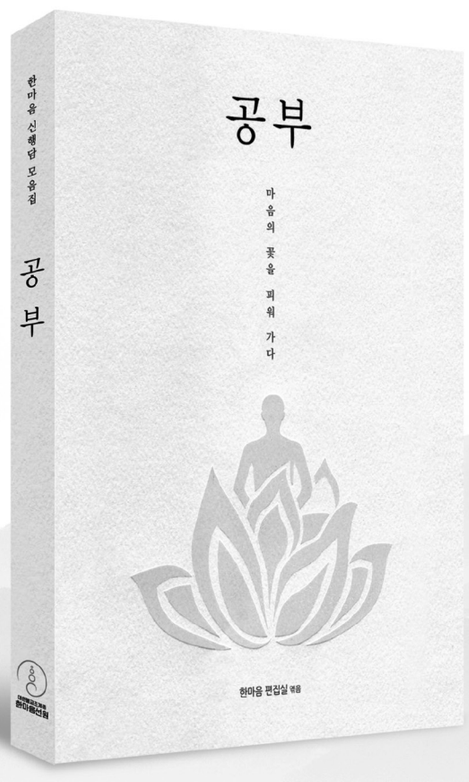
그러니 모든 게 이익이라. 깔보지 않고 무주상 보시 하는 거, 모든 게, 얕은 것도 나 아님이 없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인간으로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른 물질이 다 생기고 인간이 맨 나중에 생겼다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깔보지 말고 합류화시킬 수 있는
어질고 착하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써
다 집어먹어라.
귀합을 시켜라.

※위 법문은 1986년 7월 12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